

노로바이러스 여름에도 발생... 식약처,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앞장

- 어린이집 등 1만2,000여 곳에 노로바이러스 환자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무료 배포
- 노로바이러스 의심 환자는 식품 조리에서 배제토록 관리 필요
- 손씻기,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철저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신고 증가로 환자의 구토물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1만2,000여 곳에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를 배포합니다.

식약처는 '19년부터 어린이집 등에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과 식중독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영유아 시설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바른 키트 사용을 위해 리플릿을 제공하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도 함께 홍보합니다.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는 위생장갑, 응고제, 소독액, 흡수패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을 신속하게 처리해 구토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합니다.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사용방법>

- ①(격리) 구토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구획표시
- ②(작업자 보호) 위생장갑, 마스크 등 착용
- ③(응고제 도포) 구토물에 응고제를 뿌리고 흡수패드를 덮어 응고
- ④(버리기) 응고된 구토물을 모아 밀폐 봉투에 담기
- ⑤(소독) 구토물 있던 자리는 소독액(염소계 소독제 5000ppm)으로 충분히 소독
- ⑥(폐기) 사용한 모든 물품을 밀폐봉투에 넣고 소독액을 부어 폐기
- ⑦(손씻기) 모든 작업 완료 후 비누를 이용해 손씻기

올해 1분기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의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배 증가했으며,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의 대표 원인 병원체인 노로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이듬해 봄까지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까지도 발생하는 추세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영유아 시설 : ('18~'22년 1분기 평균) 19건, 231명 → ('23년 1분기) 49건, 601명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식중독의 대표 원인 병원체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 개인 위생관리, 주변 환경 세척·소독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로바이러스 :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C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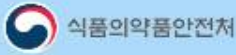
또한, 구토, 설사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의 조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뿐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급식·외식관계자, 관계기관 등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 생활에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	책임자	과 장	반경녀 (043-719-2101)
		담당자	사무관	박말숙 (043-719-2107)





안전한
식생활 36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합니다

국민 안전이 기준입니다

식중독 확산방지 구토물 소독·처리 요령



1
격리(접촉주의)
구획표시(테이프, 의자등)하고
접근 차단



2
작업자(감염주의)
위생장갑, 마스크,
일회용 보호복 등 착용



3
구토물 치우기
구토물은 종이타올 등으로
안쪽을 향해 닦기



6
손씻기
모든 작업완료후,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손씻기



5
폐기처리(외부)
구토물 처리한 물품은
밀폐봉투에 소독제(5,000ppm)를 부어
밀폐처리 후, 외부 쓰레기통에 폐기



4
오염지역 소독하기
구토물이 묻은 바닥에
염소 소독액(5,000ppm)을
충분히 적시고 기다림(약5분)
주변의 오염지역을 충분히 소독·청소

Tip

- 구토물 소독·처리 물품은 미리 준비하여 상시적으로 비치 권장
* 위생장갑, 마스크, 일회용 보호복, 소독제, 종이타월 등
- 응고제가 있을 경우 : 구토물에 응고제 뿌리고 흡수패드를 덮어 완전히 응고하여 소독
- 작업자는 급식과 관련 없는 사람이 수행
- (예시) 소독제(5000ppm) 제조 : 염소소독액(약 5%, 생활화학제품) 1컵에 물 9컵 (10배 희석)

식중독!
멈추!

NO

